

東武 李濟馬의 形象觀에 대한 考察

崔永喜* · 朴性植**

Lee Je-ma's point of view on the shape and image

Choi Young-hee, Park Seong-sik***

*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1. Purpose : From a viewpoint of Lee Je-ma, We consider the principle of shape(form) and image and try out a share of recognition about shape(form) and image in all its aspects.
2. Method : Especially we compared HeoJun's point of view with Lee Je-ma's point of view.
3. Result & Conclusion
 - 1)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n appearance of shape(form) and image is a differential Qi of sorrow-anger-joy-pleasure.
 - 2) Lee Je-Ma chose a point of view from inside to outside in principle.
 - 3) A method of materialism can be used when we give medical treatment.
 - 4) Shape(form) and image is a method of constitutional diagnosis from a viewpoint of Lee Je-ma.
 - 5) Shape(form) and image has a formal(typical) type, but the thing which is fixed do not exist, therefore partial shape(form) and image is possible.
 - 6) We should observe a condition of mind, but objectivity and reappearance always remain.

초 록

1. 目的

: 形象論의 原理의 實體를 李濟馬의 視覺에서 再照明해 보고 나아가 諸般 形象論에 對한 認識의 共有를 試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醫學教室

圖한다.

1. 內 容

1) 緒 論

: 韓醫學의 現住所에 對한 問題 提起와 論點의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2) 本 論

: 形象의 概念, 形象의 臨床의 重要性, 形象의 原理的 實體에 對하여 敘述하고 있다. 形象의 概念은 辭典的 意味와 思惟的 結果로 나누어 認識해 보고 形象의 臨床의 重要性은 傳統韓醫學會의 觀點 세가지를 紹介했으며 形象의 原理的 實體에서는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藥>에 根據한 李濟馬의 視覺을 爲始하여 餘他 臨床家와 學界의 觀點上의 變通을 學論하고 있다.

3) 考 察

: 緒論·本論部에서 紹介한 內容을 바탕으로 論者의 見解를 네가지 觀點에서 밝히고 있다. 定形性, 方法論, 許浚 形象論의 再照明, 體質과 形象의 關係가 그것이다.

4) 結 論

: 特히 考察部의 思惟를 바탕으로 여섯가지의 結論에 到達하였다.

① 形象 發顯의 가장 重要한 原因 要素는 哀怒喜樂 性情의 偏差之氣이다.

② 原理的 實體面에 있어서 內에서 外로의 觀點을 取하고 있으며 이는 곧 外에서 內로의 觀點上의 變通의 餘地를 남기고 있다.

③ 臨床 應用 面에 있어서는 唯物的인 要素가 加해질 수 있는 部分도 있다.

④ 李濟馬 視覺으로만 본다면 體質 診斷의 한 方法論에 그치는 概念이라 思料된다.

⑤ 形象은 定形은 있을 수 있으나 定해진 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人間을 四象人의 形象 類型 概念 속에서 認識하는 것은 올바른지 못한 方法이다.

⑥ 李濟馬가 窮極의으로 追求했던 醫學의 目標은 聖人之心이니 發顯된 形象 以前에 마음의 狀態를 살피는 것도 臨床 診斷의 한 類型이 되겠다. 但 客觀化·再現化의 問題는 恒常 남는다.

I. 緒 論

韓醫學을 工夫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共通的으로 接하게 되는 進退兩難의 要素가 있다. 첫째는 韓醫學을 어떻게 定義하고 接近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고

여기에는 個個人의 人生觀과 價値觀에 따라 韓醫學의 本質的 原理를 追求해 가는 樣相이 달라질 것이라 思料되며 둘째는 韓醫學의 思考의 格物致知의 宗主¹⁾가 內經임에는 反論의 餘地가 없으나 그 臨床 運用 面에 있어서 中醫學의 羅列式 辨證論治의 方法

1) <醫源論>靈樞素問 實是醫家 格致之宗主 而苗脈之所自出也. 其理有可考 而其說不可盡言.

論을 果然 어느 程度 線에서 收容해야 하며 다른 方法論은 없는가 하는 問題이며 셋째는 韓洋方 協診體制의 時代的 潮流 속에서 大韓民國의 醫療法 下에 思惟를 통한 演繹의²⁾ 思考를 爲主로 하는 韓醫學과 實驗을 통한 歸納的 思考를 爲主로 하는 洋醫學이 從屬 關係가 아닌 對等 關係로서의 醫療 體系로 發展해 갈 수 있느냐 하는 點이 그것이다.

本 論者는 上記한 세가지 問題에 對한 基本的 認識 下에 從外知內, 以表知裏³⁾의 診斷法이 비록 機質的인 病變에까지는 그 限界性으로 因해 客觀性 및 再現性을 維持하기 힘든 面이 있음을 認定해 왔으나 機能的 病變의 相當 部分이 洋醫學의 各種 器械을 利用한 診斷法보다 오히려 더욱 微細하고 臨床的 有意性⁴⁾이 많으며 또한 客觀·再現化시킬 수 있는 部分이 많이 있음을 體驗하여 왔는 바, 本 論考를 通하여 特히 形象이라는 主題로 方法論을 壓縮 하여 論하고 그 原理的 實體를 李濟馬의 視覺에서 찾아 봄과 同時에 現 學界와 臨床家들의 意見을 綜合하여 認識의 共有라는 次元에서 論點의 接近을 試圖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形象의 概念

形象에 對한 辭典的 定義는 人間이나 事物의 모양

새, 생김새, 形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臨床學的 見地에서는 앞서 論한 바와 같이 韓醫學을 어떻게 定義하고 接近해 갈 것이냐 하는 大前提의 問題와 結付되어 個個人의 臨床 類型의 差異가 하나의 概念을 달리 認識하는 契機가 되기에 한마디로 --蹴하기에는 多少 어려움이 따르며 特히 李濟馬는 形象의 概念에 對한 直接的 言及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部分에 對해서는 概略的인 것만을 整理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 ①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顯矣”〈周易·繫辭上傳〉
- ② “夫變化之用 天垂象 地成形”〈素問·五運行大論〉
- ③ “天制色 地制形”〈素問·五常政大論〉
- ④ 象이 結集하여 形이 되고, 形이 氣化하여 象이 된다. 形과 象은 反對의 概念이기는 하나 本質的으로는 一物의 兩面性에 不過하다.(陰陽의 對待的 屬性)〈上揭書〉
- ⑤ 形은 肉體의 肥瘦, 長短, 大小, 正偏, 動靜을, 象은 精神의 動靜, 氣勢, 色을 意味한다.⁵⁾
- ⑥ 形은 精을 바탕으로 成立되는 것이고, 象은 胃를 바탕으로 生成되는 것이다.⁶⁾
- ⑦ 形象은 存在論과 矛盾論에 起因한 概念이다.⁷⁾
- ⑧ 形象이란 組織(氣血)과 運行(陰陽)을 갖춘 存在物이다.⁸⁾

2) 金泰燁〈形象醫學講義錄〉 p.2
3) 東國大 韓醫科 生理學教室, 臟腑經絡學 p.9
4) 柳周烈, 東醫四象醫學講座 p.94
5) 白根基, 形象에 關한 文獻考察 中 本論部 (2)人體와 形象
6) 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 I p.63
7) 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 I p.171
8) 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 III p.56

- ⑨ 形象은 살아가는 方式(生活의 法度)까지도 差異가 나게 하는 概念이다.⁹⁾
- ⑩ 形象은 矛盾의 集體이다.¹⁰⁾
“矛盾은 積極인 것이고 論理인 이데아의 發展을 일으키는 것이다.” <헤겔 哲學>
- ⑪ 形氣論의 觀點에서의 形象이란 形은 몸통이요 象은 머리이다.¹¹⁾
- ⑫ 證治醫學(內經醫學)이 體質 類型에 關係없이 劃一的으로 適用되는 劃一論의 形象醫學이며 ‘氣裏形求’ 精神에 立脚한 形氣論의 形象醫學이라면, 四象醫學은 體質 類型에 따라 形象이 다르게 適用되는 體質類型的 形象醫學이며 形而上學의 現象을 ‘事心’으로 形而下學의 現象을 ‘身物’로 認識한 形心論의 形象醫學이다.¹²⁾

2. 形象의 臨床의 重要性

韓醫學을 追求함에 있어 餘他の 診斷法이든 그것의 客觀性 乃至는 再現性이 立證될 수 있다면 그 自體로 韓醫學 發展의 劃期的 契機가 될 것임에는 두 말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洋醫學의 可視的인 診斷이 普遍化되어 있는 現 醫療 體系에서 韓醫學의 科學化가 아닌 現代化라는 觀點에서 施行되어지고 있는 診斷法 上의 多方面의 努力이 이를 代辯해 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生命이라는 것이 人間이 만들어 낸 道具에 依해 모두 測知가 된다면 이는 곧 人間疎外를 뜻하게 되는 自家撞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韓醫師가 堪當해 내어야 할 몫이 없어지

게 되는 深刻한 危機에 處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觀形察色, 脈證併治 및 그의 合一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形象 診斷의 重要性은 自明한 事實로 認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對해 朱丹溪는 “사람에 따라서 形色이 다르고 臟腑도 같지 않으니 外症은 비록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判異하다”(〈東醫寶鑑·身形臟腑論〉中)고 하여 그 重要性을 喝破한 바 있고, 白¹³⁾은 形象이 다르면 人體에 內在된 本質도 다르다는 點과 韓醫學에서는 古來로 從外知內的 原理에 따라 望診을 重要시 여겼다는 點, 그리고 醫師의 診療와 治療에 對한 患者의 信賴感 誘發이라는 세가지 觀點에서 그 重要性에 對한 臨床의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

3. 形象의 原理의 實體

1) 〈東醫壽世保元〉原文에 根據한 李濟馬의 視覺

四象醫學을 形象의 觀點에서 再照明해 볼 때, 그 特性을 形心論의 形象醫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體質 辨證의 前提 條件이 身的 觀察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心的 觀察과 證의 觀察에 있어 李濟馬 特有의 概念이 適用되고 있다는 點에서 그러한 것이라 思料된다.

李濟馬는 〈四端論〉에서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9) 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Ⅲ p.278

10) 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Ⅲ p.377

11) 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Ⅴ p.295

13) 白根基, 形象에 關한 文獻考察 中 本論部 (3)形象을 보아야 하는 理由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라 하여 四象人の臟局大小가 形成되는 理由는 哀怒喜樂의 性情의 偏差¹⁴⁾에서 直接的으로 連累되며 이는 性情을 氣의 概念으로 把握하여 哀怒喜樂의 順動之氣는 性으로 作用하고 哀怒喜樂의 逆動之氣는 情으로 作用한다¹⁵⁾는 그의 持論을 明確히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이는 肺脾肝腎黨의 機能的 差異뿐만 아니라 外形的인 差異로도 發顯되어 <四象人辨證論>의 “太陽人 體形氣像 腦佳貞之起勢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盛壯 而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盛壯 而腦佳貞之起勢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盛壯 而胸襟之 包勢孤弱.”과 같은 體形 氣像을 形成하여 外形에 對한 靜的 觀察¹⁶⁾의 方法論으로 應用되는 그만의 一貫된 論理를 펴고 있다. 또한 容貌詞氣의 概念을 내세워 얼굴 모습과 말하는 氣運까지도 外形에 對한 動的 觀察¹⁷⁾의 方法論으로 應用할 수 있는 端緒를 提供하고 있으니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 簡易小巧”라 하여 太陰人과 少陰人에 對하여 밝히고 있으며 “太陽人 性質 疏通 又有果斷. 少陽人 剽銳好

勇”等에서는 太陽人과 少陽人에 對해서 비록 容貌詞氣라는 用語로 直接 敘述한 部分은 없으나 類推解釋할 수 있는 餘地를 남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擴充論>에서는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 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 不欲出.”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 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 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 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 不欲外勝”라 하여 性情의 合概念으로서의 性質과 情이 人事로 發顯되는 概念인 ‘材幹’을 내세우고 있고 <四象人辨證論>에서는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怯心至於怕心則大病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懼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懼心至於恐心則 大病作而 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氣 卽活也.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寧靜則 肝血 卽和也.”라 하여 先天的으로 타고난 心的 狀態로서의 概念인 ‘恒心’을 들어서 身의 觀察만이 아닌 心의 觀察의 重要性을 闡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上記의 內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李濟馬는 心身合一을 通한 明知其人¹⁸⁾을 最優先의 診斷 課題로 設定하였고 此後 疑惑이 생길 時에는 明知其證¹⁹⁾하여 用藥에 臨한 後 所謂 藥物의 適合 或 不適合 反應²⁰⁾까지 確認하고 나서야 비로소 四象人の 體質

14) 文成煥·宋一炳,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形象醫學 精神 比較考察 中 本論部 (1)體形

15)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p.84

16)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p.120

17)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p.121

18) 文成煥·宋一炳,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形象醫學 精神 比較考察 中 緒論部

19) 18)의 脚註 引用과 相同함.

20) 柳周烈, 東醫四象醫學講座 p.204 ~ 229

鑑別에 完全을 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參考로 證의 觀察에 있어서는 保命之主(正氣)의 充分·不足에 따라 完實無病과 大病 등으로 나누어 認識할 수 있으나 이는 本論考의 論點과 多少 聯關性이 稀薄하다고 思慮되는 바 具體的인 言及은 省略하기로 하겠다.

2) 原理的 實體에 對한 觀點의 變通

① 外에서 內로 成立되었다는 觀點

朴²¹⁾은 五臟六腑가 形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外的 條件(風俗)이 形象을 만드는 것이니 結局은 形象이 五臟六腑를 만드는 것이라는 論理를 展開하고 있다. 그의 主張은 原文의 根據를 明確히 提示하고 있지는 않지만 <東醫寶鑑>의 目次가 單純히 百科辭典式 配列의 意味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體의 組織 原理와 成形 原理에 있어 一定한 構圖로 配置되어 있다는 觀點으로 則 形象이 五臟六腑를 놓고 五臟六腑가 身形²²⁾을 놓고 身形이 經絡을 낳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精氣神血 自體를 氣化 作用으로 形成되는 人體 新陳代謝의 概括 概念에서 進一步하여 形象 診斷으로 應用할 수 있는 四科(種子)의 概念으로 鼎立하고 덧붙여 性情의 發顯狀이 追加된 四類(魚鳥走甲)의 概念을 導入하여 臨床에의 한 方法論으로 應用하고 있으며 <東醫寶鑑·寒門>의 '六經形症²³⁾에 用藥하는 境遇에 着眼하여 耳目口鼻 中 特히 目鼻의 升降, 集散, 凹凸의 原理에 따라 六經

形이 存在한다고 보고 傷寒方의 境遇는 뚜렷한 六經形의 定形이 나타날 때에는 그 效果가 더욱 卓越하다는 觀點을 내세우고 있다.

② 氣機(氣運動)의 上下升降 概念에서 接近하는 觀點

金²⁴⁾은 上陽下陰의 原理에 依해 四象人의 形象 中 特히 顏形에 對해 論하고 있는데 太陰人은 陰陽 俱實하기 때문에 上下가 모두 發達하고 少陰人은 陰實陽虛하기 때문에 下部가 더욱 發達하며 少陽人은 陽實陰虛하기 때문에 上部가 더욱 發達한다는 觀點을 提示하였고 太陽人의 形象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다. 또한 文²⁵⁾은 上升之氣가 많은 太陽人과 少陽人은 顏面의 上停 部位인 額이 發達하고 性格이 前進之氣가 強하여 面形이 突出形이 되며, 下降之氣가 많은 太陰人과 少陰人은 顏面의 下停 部位인 頤이 發達하고 性格이 後退之氣가 強하여 面形이 吸收形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金²⁴⁾의 觀點에서 性格의 前進後退之氣가 追加된 觀點이라 볼 수 있다.

③ 陰陽氣血의 觀點으로 보는 境遇

人體를 上下, 左右, 前後, 表裏의 八象으로 觀察한다고 할 때, 上下·表裏는 陰陽으로, 左右·前後는 氣血로 본다면 形象을 陰陽氣血로 接近하는 柳²⁶⁾의 觀點은 結局 上下左右 및 그의 綜合으로 歸結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金²⁴⁾의 觀點에서 氣血多少의 問題와 太陽人의 境遇를 追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圖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21) 芝山 朴仁圭, 臨床學特講Ⅶ, 傳統韓醫學會, p.277 ~ 279

22) 여기서의 身形은 外形 26가지를 意味함.

23) 太陽形症, 陽明形症, 少陽形症, 太陰形症, 少陰形症, 厥陰形症

24) 金洲, 東醫四象醫學講座(柳周烈 著) p.103

25) 文成煥·宋一炳,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形象醫學 精神 比較考察 中 考察結論部

26) 柳周烈, 東醫四象醫學講座 p.120 ~ 135

〈圖表.1〉²⁷⁾

四象人	陰陽(上下)	氣血(左右)
太陰人	陰陽俱實	多氣多血
少陰人	陰實陽虛	多血少氣
太陽人	非實非虛	前後內外之象
少陽人	陽實陰虛	多氣小血

④ 李濟馬의 心觀에 對한 穿鑿

東武는 〈格致藥〉의 「儒略」에서 四象(事心身物)에 對한 概念을 鼎立하고 「反省箴」에서는 治心正己의 精神을 強調하였으며 「獨行篇」에서는 知人의 方法論에 對한 敍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四象醫學의 原理論을 形成하는 哲學的 基礎가 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 이다. 特히 「反省箴」에서 “以一人之心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 易知 小人之 心 難知. 易知之心多而難知之心少者 名曰君子 難知之心多而易知之心少者 名曰小人”라 하여 사람의 마음은 君子之心(易知之心)과 小人之心(難知之心)이 共存하고 있는데 이들이 發顯되는 樣相의 多少에 따라 君子도 될 수 있고 小人도 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對해 孫²⁸⁾은 〈格致藥〉에서의 心觀은 體質的 特性에 따른 性情 差異 以前の 普遍的인 心에 對한 觀點이라는 事實을 밝히면서 心이 一身의 主宰가 되므로 君子之心과 小人之心의 差異는 慾心の 有無에 있으니 治心正己에 依해 慾心을 없앨 수 있는 것이라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結局 人間의 形象이라는 것이 定形化 될 수 있는 部分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部分이 더 많은 理由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思

惟에서 그 解答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考慮해 봄 직하다.

Ⅲ. 考 察

韓醫學과 洋醫學의 方法論 上的 가장 큰 差異點을 譬喻하자면 모르긴하되 望遠鏡과 顯微鏡의 差異일 것이다. 이 部分에서 萬若 異見이 있다면 現 韓醫界에서 提起되고 있는 모든 概念에 對한 原理論的 接近은 下等 意味없는 일로 轉落될 것이다. 이제 李濟馬가 〈四象人 辨證論〉에서 「禮記」의 “開而不達則思”를 引用한 趣旨을 되새겨 보면서 昨今에 일고 있는 諸般 形象論에 對한 本論者의 見解를 다음 네가지 論點에서 直說的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째, 形象 發顯의 原理的 實體와 그 定形性에 對한 觀點이다. 이는 韓醫學을 어떻게 定義하고 接近할 것인가 하는 大前提의 問題와 連累되는데 緒論部에서도 暫時 言及한 바 있지만 韓醫學을 韓國人의 삶의 方式과 情緒에 맞도록 演繹化한 學問이라고 上定한다면 應當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을 通한 原文的·臨床的 根據를 바탕으로 하여 形象論에 接近해 가야함이 옳고, 그렇다면 哀怒喜樂 性情의 偏差之氣가 結局 形象의 差異로 發顯 된다는 李濟馬의 內에서 外로의 觀點과 〈東醫寶鑑〉目次에 依據 形象이 五臟六腑를 만든다는 朴²¹⁾·趙²⁹⁾ 등의 外에서 內로의 觀點은 一見 外見上으로는 크게 相反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으나 李濟馬의 四象은 五臟이 不變의 眞理임을 說明한 것이고 朴²¹⁾·趙²⁹⁾ 등에 依한 形象論의 觀點은 五臟이 變化의 眞理라는 前提下에 提

27) 柳周烈, 東醫四象醫學講座 p.135 參考

28) 孫祥坤·宋一炳, 東武 李濟馬의 心身觀에 對한 考察 中 緒論結論部

29) 趙成泰, 形象醫學의 臨床과 實際 p.7

起되고 있는 論點이니 이는 變化 속의 不變, 不變 속의 變化가 共存하는 陰陽의 對待的 屬性(一物의 兩面性)을 기틀로 하여 再接近해 본다면 그리 論難의 餘地가 있는 部分도 아닐 것이고 오히려 當然한 歸結 이라 生覺된다. 다만 〈格致藁·反省箴〉에서 “以一人之心 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易知 小人之心 難知. 易知之心多而難知之心少者 名曰 君子 難知之心多而易知之心 少者 名曰 小人”이라고 한 部分과 〈四端論〉에서提起된 “哀怒喜樂之暴動 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知人不明也”와 “一次大動 十年難復”이라는 觀點, 그리고 “哀怒喜樂未發而恒械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哀怒喜樂已發而 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로 表現된 李濟馬의 ‘無形의 마음’에 關한 深奧한 穿鑿은 이 自體만으로도 人間 形象의 發顯이 多樣해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人間의 形象을 마치 公式化하여 臨床에 適用하는 것은 結局 쉽게 限界性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하니 人間의 形象은 定形은 있을 수 있으나 定해진 바는 없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둘째, 形象觀을 追求하는 方法論 上的 問題이다. 李濟馬 視覺의 優秀性이라면 그것은 分明 內部的 問題이다. 그런데 이를 客觀化·再現化의 名目으로 接近하다 보면 자칫 그 뜻을 잃어버리고 唯物的 思考로 흐를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人間이 生老病死하는 것은 順理이고 適當히 病이 있으면 오히려 驕慢해지지 않을 수 있어 좋을 法도 한데 우리 社會는 지나친 겁주기³⁰⁾ 現象으로 困한 醫原性疾患³¹⁾이 意外로 너무 많고 따라서 患者의 醫師에 對한 不信度도 그만큼 增加되어 있는 狀態이니 李濟馬의 形象觀도 그것을 반드시 患者의 治療 라는 目的에서 불

것이 아니라 醫師 自身의 人格 修養이라는 見地에서 바라본다면 그 뜻이 通하지 못할 下等의 理由가 없다. 但只 “醫者意也”라는 事實을 너무도 쉽게 忘却하는 世態가 憂慮될 뿐이니 恒械自反이 必要할 것이다.

셋째, 許浚의 形象觀에 對한 再照明이다. 則 〈東醫寶鑑〉이 體質 類型을 無視한 劃一的 形象醫學이라는 觀點에 對한 再考이다. 四象體質醫學 客觀化에 關한 研究 - 最終報告書 - 에 依하면 上記한 觀點이 提示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許浚의 醫學 思想이 李濟馬의 醫學 思想에 미친 影響 關係 面에서, 特히 原文의 考察面에서는 妥當성이 있지만 朴²¹⁾·趙²⁹⁾ 등의 觀點에서와 같이 許浚의 醫學 思想은 비록 原文에 根據하여 表出되고 있지는 않지만 〈東醫寶鑑〉의 目次를 通하여 一貫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點에 着眼하여 後學들이 任意用之할 수 있는 變通의 餘地를 남겨 놓았다고 본다면 그 再考의 必要性은 있다고 본다. 넷째, 體質과 形象의 關係에 對한 設定이다. 李濟馬는 그의 著書를 通해 形象의 概念 定義를 한 바가 없다. 但只 原文의 根據에 依하여 後學들의 視覺에서 再照明해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果然 그것이 李濟馬의 視覺이었을까?’ 하는 疑懼心은 恒常 남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四象醫學을 追求하는 多數人의 共有된 認識 속에서 자리메김 되는 概念이지 결코 絕對性을 띄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本 論者의 見解로는 李濟馬에게 있어서의 形象이라는 것은 四象體質 類型의 鑑別을 爲한 하나의 方法論 程度에 그치는 概念이 아니었을까 思料되는데 왜냐하면 李濟馬가 追求했던 窮極의인 醫學의 目的은 바로 聖人之心³²⁾이 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30) fear arousing을 뜻함. 東國大學校 豫防醫學教室, 豫防醫學, 1997, p.20

31) iatrogenesis를 뜻함. 東國大學校 豫防醫學教室, 豫防醫學, 1997, p.6

32) 〈四端論〉“聖人之心 深憂天下之不治 故非但無愁也 亦未暇及於一己之愁也”

IV. 結 論

本 論考의 主題인 「李濟馬의 形象觀」에 對해 考察해 본 結果 몇가지 結論에 到達하게 되었는데 그 要旨을 아래와 같이 記述하고자 한다.

1. 形象 發顯의 가장 重要한 原因 要素는 哀怒喜樂 性情의 偏差之氣이다.
2. 原理의 實體面에 있어서 內에서 外로의 觀點을 取하고 있으며 이는 곧 外에서 內로의 觀點上의 變通의 餘地를 남기고 있다.
3. 臨床 應用 面에 있어서는 唯物的인 要素가 加해질 수 있는 部分도 있다.
4. 李濟馬 視覺으로만 본다면 體質 診斷의 한 方法論 程度에 그치는 概念이라 思料된다.
5. 形象은 定形은 있을 수 있으나 定해진 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人間을 四象人의 形象 類型 概念 속에서 認識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方法이다.
6. 李濟馬가 窮極의으로 追求했던 醫學의 目標은 聖人之心이니 發顯된 形象 以前에 마음의 狀態를 살피는 것도 臨床 診斷의 한 類型이 되겠다. 但 客觀化·再現化의 問題는 恒常 남는다.

V. 參 考 文 獻

1.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集文

- 堂, 1998
2. 柳周烈, 東醫四象醫學講座, 大成文化社, 1999
3. 韓國韓醫學研究院, 四象體質醫學 客觀化에 關한 研究 - 最終報告書 -, 保健福祉部
4. 文成煥·宋一炳,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形象醫學 精神 比較考察, 四象醫學會, 1996
5. 孫祥坤·宋一炳, 東武 李濟馬의 心身觀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 1997
6. 大韓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 I, 芝山出版社, 1996
7. 大韓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 II·III, 芝山出版社, 1997
8. 大韓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 IV·V·VI, 芝山出版社, 1998
9. 大韓傳統韓醫學會, 臨床學特講 VII, 芝山出版社, 1999
10. 朴仁圭, 形象과 醫學, 芝山出版社, 1999
11. 趙成泰, 形象醫學의 臨床과 實際, 形象醫學會, 1999
12. 白根基, 形象에 關한 文獻考察 - 內經을 中心으로 -, 形象醫學會, 1999
13. 金泰燁, 形象醫學講義錄, 形象醫學會, 1999
14.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98
15.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臟腑經絡學, 1995
16. 東國大學校 豫防醫學教室, 豫防醫學, 1997